

선배님! 요즘 뭐하세요

제4회

신동호 동문

'방송은 객관적 입장 견지해야'

후배들의 힘찬모습 다시 보고싶어

이 시리즈의 마지막순서는 영문과를 졸업한 신동호(85학번) 아나운서이다.

현재 저녁6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 신동호는 깔끔한 매너와 진행속도로 대학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 이번 인터뷰는 서울캠퍼스 404의 조해나(물리·1)와 함께하였다. <편집자>

조해나(조): 사회에서의 직업을 방송부문의 아나운서로서 시작하게 된 동기는?

신동호(신): 영문과 졸업반 시절 MBC의 사원모집공고를 보고 아나운서 부문에 지원, 합격한 것이 나의 방송생활의 시작이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일들과 나의 적성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보았을 때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아나운서라고 생각된다. 특히 창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요소들은 다소 떨어지지는 분야이지만 나의 말이 대중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느낄 때 이 일을 잘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이태근(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신: 지난날까지 3개의 프로그램을 맡고 있다. 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지금은 6시에 방송되는 뉴스센터만을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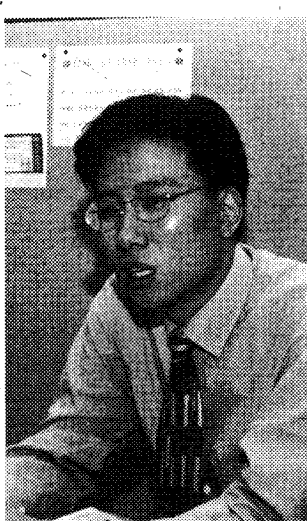
조: 흔히 아나운서나 앵커를 창조성은 전혀 없는 영문과라고 일컫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신: 내가 대본대로 하는 것은 시간의 엄수일 뿐이다. 뉴스에 있어서 사실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아나운서의 논평이라고 생각한다. 대본에 논평이 있지만 이러한 것을 지키는 아나운서는 없다.

이: 지난 한층원사건때 방송사나 언론사는 학생들을 지나치게 몰아세우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때 방송을 하면서 느낀 점이나 의견은?

신: 개인적으로는 객관적인 입장을 견지하지는 게 나의 생각이다. 그러나 학생과 전경의 대치장면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 방송을 보는 시청자의 생각이 달라진다. 이러한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조: 95년도에는 라디오도 진행하였는데 TV 방송 진행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신: 주로 혼자 진행하는 라디오는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나 경험들을 솔직히 얘기할 수 있다. 만일 내가 어제 술을 먹었으면 그러한 얘기를 라디오에서는 할 수 있지만 TV에서 그러한 말을 한다면 방송자세가 개인적으로 흐를 수 있기에 라디오와는 많은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이: 최근 연예인들이 MC를 맡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신: 양면적인 면이 있다. 방송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프로그램은 만들 의미가 없다. 시청률과 방송의 질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방송사가 연예인들을 기용하는데 표 준어의 사용, 진행자로서 상식 등에 있어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아직 실험적 단계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이다. 과도기적 상태가 지나면 해결되리라 믿는다.

조: 80년대의 학번으로서 90년대 학생들을 보는 관점은?

신: 현재 30대로서 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대는 80년대의 현대사 속에서 많은 시련과 사건들을 대학생의 입장으로 겪어내었기에 사회비판세력으로서 대학을 규정하는 것이 우리 세대를 관통하고 있는 지배적인 견해이다. 90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후배들은 사회비판 세력의 모습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 것 같다. 나름대로 자신의 할 일을 묵묵히 실행해 나가는 학생이 있는 반면 가치관의 혼돈속에서 방황하는 학생들도 많이 있는 것 같다.

이: 마지막으로 경희대학교 동문으로서 재학 중인 후배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신: 솔직히 말해서 졸업과 함께 학교를 떠난 후 작년에 처음으로 학교에 가 보았다. 내가 자주 다녔던 카페나 음식점들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상점들이 그 자리를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변한 것은 학교의 모습만이 아니었다. 대학이 취직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학생들에게 인식되어지는 것같이 아쉬움을 피할 수 없었다. 응미하는 사자의 힘찬 모습을 다시 보고 싶다.

(인터뷰=이태근 기자, 조해나(문리대 물리1))

서양문화 산성비에 놀이문화 '시들시들'

우리문화가 쇠퇴한다

우리민족에게 있어 가장 큰 명절을 말하자면 추석과 설을 말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명절인 추석과 설에 행해지던 민속 놀이는 이제 사라진 것 같다. 가족끼리 모여앉아 놀던 윷놀이판이 화투와 트럼프로 변색된지 오래됐고 아이들이 계기를 차던 그 자리는 공회합판이 남아있다.

우리의 놀이문화는 두 가지 갈래에서 생겨났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생겨난 하

부족하기 때문에 제사의 여러 용이 있다.

우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일본의 예를 들 수 있다. 일본에는 마쓰리(각 마을 단위의 축제)를 1년내내 연다. 이를 통한 그들의 관광수입은 전체관광수입 중 50% 이상을 차지한다. 우리의 경우 10월이 문화의 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이 한달 동

갓이나 레드캡 그룹과 김덕수 있었다. 예를 들면 '석전(돌싸움)'의 경우 무기의 사용과 조직력을 강화시키는데 원목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전해오는 문화는 상층민의 문화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이유는 상층민의 문화가 하층민의 문화를 흡수한 데서 원인을 찾는다.



▲달출의 한장면

보지 않은 아이들이 성인으로 변해감에 따라 우리의 민족문화는 더욱 사라질 위기에 몰리게 되었다. 또한 민족놀이는 인간문화재와 같은 계승자들이 사물놀이패의 협연은 우리의 놀이문화를 한층 성숙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놀이문화를 계승하는 것은 우리의 현대적 삶을 윤택하게 하는 것이면서 세계속에서 우리민족의 질적 우수성을 확보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는 놀이문화를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다.

(문화부)

놀이성격 풍농기원 의미 강해 농촌사회 붕괴로 쇠퇴일로 겪어

충민의 문화와 상류계층의 유희를 위해 생겨난 문화가 그것이다.

그러나 상층민의 문화라는 것도 사실 민가에서 전해지던 것이 궁중에까지 전파된 것이 대부분이다. 이들의 종류는 계기차기, 윷놀이, 연날리기, 팽이치기 등 지금 우리가 행하는 전통문화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놀이의 성격은 풍농을 기원하는 의미가 강했고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놀이도 많이

안 모든 민속행사가 치러지고 있다. 그러나 행사의 집중은 오랫동안 사람의 시선을 끌기는 어렵다.

또한 현재 민족문화정책이 문화정책연구소에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지원예산들이 부족해 민속놀이의 개발과 보전이 더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사물놀이의 경우 재즈계의 거물인 '스티브

이러한 놀이문화가 쇠퇴한 원인으로서는 일제의 문화말살정책과 함께 유신시대 그동안 유지되었던 총력공동체가 서구의 사회로 변화하면서 대중적이 사라진 것이 큰 이유이다. 유신시대의 문화정책은 우리것을 살린다는 의미보다는 모든것을 서구의 것과 바꾸려는 움직임이 강해 민속놀이를 즐길 수 있는 명절을 없애려는 노력(?)도 보여졌다. 이후 현대사회에 들어와서는 우리것을 접해

높은 참여율 보인 학생참여 위주의 다채로운 행사

서울캠퍼스 가을 대동제, '하늘연달 경희사랑 96' 평가



▲노래마당에 초대손님으로 출연한 가극단 '금강'

서울 캠퍼스 가을 대동제 '하늘연달 경희사랑 96'이 지난 30일부터 1일 까지 삼일간 열렸다.

대동제 첫날인 30일 노천극장에서 '젊은 영화제'로 휴머니즘을 주제로 한 '데드맨 위키'가 상영되었다. 이 영화는 인권존중의 시각에서 사형수를 짐승이 아닌 인간으로 바라보고 있고 사형제도의 물인간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또한 31일 대운동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꿈이 있는 가을 운동회' 체전 결승전은 비가 오자 관례로 11월3일로 연기되었다. 이날 개최된 체전 종합 우승은 치태와 체태가 공동으로 차지했다. 각 단대별로 축구는 체대, 족구는 문리대, 줄다리기와 치태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마지막 날인 1일 노천극장에서는 호주어학연수권등 푸짐한 상품이 걸린 '세계로 가는 하늘' '별밤 퀴즈 대잔치'가 열렸다. 이날 비가 많이 와서 행사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해서 행사는 차질없이 진행되었고 김태환 (한의학 1)과 최세용 (한의예 1)이 1등을 차지해 호주 어학 연수권을 획득했으나 김태환군은 제적되어 호주연수권을 받지 못했다. 2등에게 주어진 일본 왕복 항공권은 김형근(사학 93)과 윤지훈(경영 96)에게, 3등에게 주어진 제주도 왕복 항공권은 문성민(사학 93)과 원영삼 (사학 93)에게 돌아갔다.

또 같은날 노천극장에서 치러진 제2회 '하늘연달 노래마당'에는 예선을 거친 16팀이 본

선에 진출해 그 중 남성 2인조 그룹 신강호(회계 91)와 이인수(회계91)가 안치환 곡 '고향집에서'를 불러 1등을 차지했다. 2, 3등은 정경화의 '나에게로'의 초대'를 부른 안옥희(지리 94)와 블랙홀의 '깊은 밤의 서정곡'을 부른 박명진(영문 96)에게 각각 돌아갔다. 노래마당의 감동적일인 인기상은 N·EX·T의 'Money'를 부르며 멋진 춤실력을 보였던 남성 2인조 그룹 'SEXT' 김현철(국문 96)과 유학찬(국문 96)이 거머쥐었다. 이번 노래마당에서는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참가자들이 치열한 경합을 벌여 '경희 사랑상' 등의 계획에 없던 상이 생기기도 했다.

이번 대동제는 우천으로 인한 행사 시간 지연과 세부 일정 변동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긴 했지만 무엇보다 학생들의 높은 참여도가 돋보였다.

(오경란 기자)

이번 주가 시리즈 마지막입니다

문화단신

극단짓패 21

문화 예술계 인사들로 구성된 극단(짓패 21)창단과 그의 결실 '달지꽃 피면'의 창작공연이 오는 10월31일부터 12월1일까지 대학로 '오

늘 소극장'에서 선보인다. '80년 광주의 웃음과 사랑'을 주제로 암울했던 역사를 재조명하고 광주의 근본정신과 통일을 준비하는 마음을 되새기고자 시도된 이번 공연은 "우리의 연극이 그대 가슴에 전새벽 기우는 술잔 열 죽순으로 피어"라는 부제로 무대에 올려진다. 이 작품은 미국 남침례교

선교사 자격으로 광주에서부터 한국과 인연을 맺게된 발터목사의 광주현장 체험을 그 내용으로 한다. ☎ 3673-1495

정경화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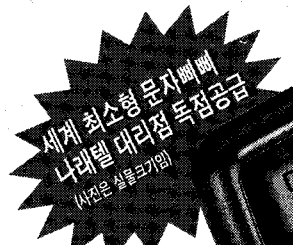
'정경화콘서트'가 오는 12일부터 17일까지 신촌 라이브극장 '벚'에서 열린다. ☎ 393-8467



고객충족을 위한 최고의 서비스로 한국통신을 능가할 경쟁력 있는 서비스로 96 고객만족 최우수상 수상

나래이동통신 남자 농구단 출범 나래이동통신이 멋진 농구의 세계를 시작합니다. 시원한 수신을 만들어 내는 나래이동통신을 기대하십시오.

아무리 편해도
아무리 정확해도
아무리 빨라도
메신저 - 컸닝 용으로는 쓰지 않습니다!



말만 하면 글로 쓴다 015나래텔 메신저

세계가 선택한 앞선 페페방식, 메신저
미국, 홍콩, 싱가포르 등 세계의 앞선 사람들은 직접 통화하는 메신저방식 페페로 빠르고 정확하게 메시지를 주고 받습니다.

정보시대의 앞선 페페서비스, 메신저
숫자를 받는 것은 기본, 문자메시지까지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정보시대의 첨단 페페서비스! 우리나라 페페는 메신저 서비스로 앞서갑니다.

앞선 사람들의 경제적인 선택, 메신저
메신저는 전화 다시 걸어 확인할 필요없으니까 전화요금만 따져도 월 사용료 너무나 싸게 빠집니다.

한발 앞선 정보가 팍팍! 컴퓨터같은 메신저
하루 38번씩 속도로 날라오는 뉴스, 상식, 생활정보! PC 통신 없이도 메신저만 있으면 매일매일 생생한 정보를 바로 받습니다.

직접통화방식은 나래텔 메신저 뿐입니다
녹음 했던 메시지를 대충 띄워주는 게 아니다. 뜯었다 나중에 띄워주는 것도 아니다. 90초 동안 메신저와 직접통화한 후 한 자 한 자 메시지 재확인 하고 최고 40자까지 넉넉하게 띄워주니까 100% 정확하고 비교할 수 없이 빠르다.

말만 하면 글로 쓴다 015나래텔 메신저

나래이동통신
상담 : 고객센터 (02) 5678-015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naray.com
영업소로 전화하시면 가까운 015 나래텔 대리점을 안내해드립니다.

●강남영업소:(02) 5678-015 ●강북영업소:(02) 7331-015 ●서부영업소:(02) 6336-015 ●북부영업소:(02) 9957-015 ●중부영업소:(02) 7064-015 ●수원영업소:(031) 2168-015 ●인천영업소:(032) 4349-015 ●동부영업소:(02) 4789-015 ●안양영업소:(034) 533-015 ●부천영업소:(032) 3240-015